천마종균 "불량" 대부분

산림청 임업연구원 조사결과

시중 유통되고 있는 천마재배용 종균이 대부분 불량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최근 시중에 나돌고 있는 다양한 천마재배용 종균을 전부 수집하여 시험중에 있으며, 이중 15종을 검정한 결과, 50%는 재배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종균으로 밝혀졌다. 또 실연재배시험 결과 천마증식량이 많은 우량균주는 15종 중의 13%인 단 2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천마인공재배는 이처럼 불량종균의 무분별한 사용과 재배방법의 미숙으로 농가재배 성공률이 2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천마재배는 관련 종마나 종균의 유통이 불명확하고 중간단계에서 정체불명의 대행업체들이 이의 유통을 맡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실패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농가피해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인 상태이다.

임업연구원 산림미생물과 김현중 연구원은 『올해 새로 천마재배를 시작할 농가는 종균선정에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하고 재배전에 반드시, 연구개발된 재배방법을 포함하여 관련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예로부터 고혈압, 뇌졸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마는 80년대들어 처음 재배가 시작돼 최근 농산물 개방과 농촌노동력 감소에 편승하여 재배면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날 학술 발표회에서는 육종재배. 품질가공분야에 관한 27개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생약협회 황기 농사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최근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소재 2천평 밭에 황기를 파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회 자체적으로 황기 농사를 시작한 것. 지난달 27일, 협회 사무국 직원들이 직접 돌을 고르고 파종한 황기 밭에서는 올 가을 약 2천1백kg(건근)의 튼실한 황기수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용작물학회 정기총회

지난달 26일 영남농업시험장서

한국약용작물학회는 지난달 26일, 영남농업시험장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1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는 한국생약협회 이종용회장과 대한한의사회 약침학회 유기덕회장이 「약용작물 안정생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약침요법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각각 특강했다.

학술발표회에서는 「황기 기계파종의 적정 재식밀도와 생력효과」「한국의 약용식물 조직배양 연구현황」 등 육종재배분야와 생물농화품질 가공분야의 총 27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정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림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시책인 주산단지고시 육성책이 무원칙한 선정과 고시후의 부실한 지원으로 재배농가로 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생약재배 주산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적지적작의 주산단지 고시, 육성책의 과감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약용작물학회는 그동안 년 3회 발행해 오던 학회지를 올 부터 년 4회 발행키로 했다.

한라산자생 왕벚나무발견

한라산에서 자생하는 왕벚나무가 32년만에 추가로 발견됐다. 산림청 입목연구소 남부육종장과 제주대 김문홍 교수 등 공동조사팀은 지난 27일 한라산 관음사 부조에서 자생왕벚나무 5그루를 발견했다.

왕벚나무가 한라산에서 자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는 지난 64년이후 처음이다.

농경지 개량 사업 추진

농림수산부, 내년부터

카드뮴이나 납, 구리, 아연등 중금속에 오염된 농경지를 개량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농림수산부와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0일, 작년 4월 전국의 휴·폐금속광산주변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금속 오염조사 결과, 일반 농경지에 비해 중금속오염도가 심할것으로 드러난 지역에서 토양개량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경기와 강원, 충남북·전남·경남북 등의 중요 광산지역 16개소 인근 농경지 6백11·7ha 가운데 2백33·7ha(70만1천1백평)에 대해 중금속오염도를 정밀조사해 이들 농경지가 모두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에 오염돼 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산채류 발암물질 억제"

강원대 함승시교수 주제발표

국내산 나물류에 강력한 발암물질 억제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졌다.

지난달 22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민속채소육성협의회에서 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함승시 교수는 「민속채소의 약리적 효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함교수는 21종의 국산산나물을 대상으로 생즙이나 가열즙을 내 발암물질 억제효과 실험을 한 결과, 이들 산나물이 강력한 변이원물질로 알려진 〈Trp-p-1〉 〈B(a)p〉 〈2-AF〉 〈ANQO〉 등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Trp-p-1〉 등은 변이원물질로 돌연변이와 암을 유발시킬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교수는 산나물 가운데 나물취를 비롯해 냉이·곰취·잔대순·무릇·쇠비름·개미취·소리취·민들레·질경이 등은 〈B(a)P〉 〈2-AF〉 〈Trp-p-1〉의 활성을 80%이상 강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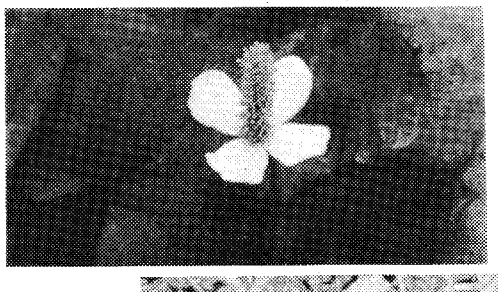
인사

▲남기철 충북 제천시 중부 공판장장 96년 4월 15일부 ▲박찬현 경북 예천군 공판장장 96년 5월 1일부

내방

△김종근 이사 △함영완 이사 △박영임 강원도 지부장 △이성덕 경기 구리시 사무소장 △신상섭 충북 단양군 공판장장 △이용후 대전 광역시 공판장장

삼백초 종근 분양안내



봄 파종기를 맞이하여
농가 고소득 약용작물인 삼백초 종근을 분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효능 : 항암제, 황달, 부인대하증, 해독제, 부종, 각종염증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각종 한약재 규격품 전문 생산업체 —

삼 오 제 약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278번지
전화: (0591) 54-7530. 휴대폰: 011-583-7530